

한국어에 나타나는 ‘경계’ 표현의 개념화 양상

전혜영

1. 머리말

오늘날 세계는 인종과 국가의 경계가 없어진 세계, 지구화된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학문 분야에서도 학제 간 연구가 많아지고 연구 분야 간 분명했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까지 분명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인종과 인종 간에 경계가 있었다는 말이며, 학문 간에도 경계가 있었다는 것인데, 있었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경계’는 어디에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경계는 가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농장의 경우, 어디까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지 나타내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거나 돌담을 쌓아 경계를 표시하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울타리나 돌담 같은 눈에 보이는 경계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지와 외부가 구분되는 땅의 경계는 존재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은 땅이나 건물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실제

전혜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5)

www.kci.go.kr

가 없는 개념이나 사건의 경우에도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생각의 경계'나 '생과 사의 경계'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사물이 아닌 개념에도 경계를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유가 가능한 것은 추상적인 대상에 경계를 부과하여 이해하는 인간의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에 의하면 경계를 부과한 대상을 그릇(container)으로 인지하는 [그릇은유]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¹⁾ 이러한 은유에 의하여 경계의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며, 경계를 기준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거나,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54-58).

본고에서는 일상 언어의 사용 속에 개념화 면모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인지주의미론적 관점에서 '경계'의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일상적으로 우리는 '영토와 영토의 경계'만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 '몸과 기계의 경계'를 말하기도 하며, 흔히 '경계를 넘어서'라든가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경계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속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경계'의 개념이 들어 있다고 보고 한국어 표현 중 '경계를 X하다', '경계가 X하다', '경계로 X', 'X의 경계' 형식을 중심으로 경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
- 1) 레이코프와 존슨은 일상표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은유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은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인지언어학 관점의 은유에는 [전쟁은 전쟁과 같이 두 개념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적 은유' 외에,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와 같은 '지향적 은유',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정신은 물건과 같은 '존재론적 은유'가 있다. 그릇은유는 존재론적 은유의 대표적인 예이다.
 - 2) 1980년대에 레이코프, 존슨(1980)을 시작으로 레이코프(1987), 레이코프, 터너(1988), 커베체취(2002) 등으로 이어지는 인지주의미론 연구물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은유환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근래에 한국어 표현을 대상으로 인지주의미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개념화 양상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면, '사랑'에 대하여 나익주(2000)와 박수경(2007), '정'에 대하여 나익주(2006), '한'에 대하여 방영심, 이정화(2007), '말'에 대하여 임혜원(2001), 감정에 대하여 임지룡(2000, 2001a, 2001b), 공간개념에 대하여 임혜원(2003)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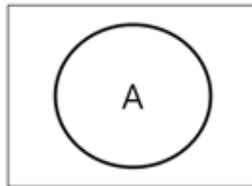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일상 언어 표현의 용례는 필자가 임의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언어학 연구 자료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용례도 풍부하고 자료의 객관성도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아, 카이스트(KAIST) 말뭉치 자료와 세종말뭉치 자료를 검색하여 나온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³⁾

2. 경계의 위치와 표지들

1) 경계의 위치

경계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X의 경계’ 형식이 가능하다면 X가 경계를 가진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표현을 말뭉치 자료에서 찾아보았다. 표현 형식상 ‘A의 경계’와 ‘A와 B의 경계’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 형식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A의 경계’ 표현



[그림1] ‘A의 경계’ 표현의 도식

3)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KAIST 말뭉치 자료의 한국어 용례 색인(KAIST Concordance Program)과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 자료에서 해당 형식을 검색하여 찾은 것이다. KAIST 말뭉치 자료는 문화체육부와 과학기술처의 연구 과제 “국어정보처리기반구축” 및 “STEP2000” (Software Technology Enhancement Plan 2000)에 의하여 구축된 자료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 자료 일부(7,364,815 어절)를 이용하여 추가 용례를 찾아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특정 말뭉치와 자료 형식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A의 경계’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은 A라는 대상이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자료의 특징은 경계를 가진 대상 A가 존재하고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내부와 외부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 대상(A)의 크기가 ‘태양계’와 같이 크든지(1ㄱ) ‘세포’와 같이 작든지(1ㄴ) 관계없이 대상(A)과 그것을 제외한 영역(~A) 사이에 경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문 (2)에서 보듯이 경계를 가진 대상이 ‘나라’라고 하면 경계를 기준으로 안은 나라(A)가 되지만 경계 밖은 나라가 아닌 것, 즉 ~A가 되는 것이다. ‘국가’나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보호구역의 경계’라고 할 때도 경계의 내부만이 보호되는 구역이며 그 바깥은 보호되는 구역이 아니게 된다(2ㄱ). 또한 ‘자연공원’에서도 경계 안이 자연공원이기때 경계의 밖은 자연공원과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른 곳이 되는 것이다(2ㄴ).⁴⁾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 경계를 기준으로 대상의 내부가 외부보다 더 중요하거나 중심이 되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

- (1) ㄱ. 행성들이 발견됨에 따라 태양계의 경계는 계속 확대 되었다.
 ㄴ. 세포막이 단순히 세포의 경계를 유지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 (2) ㄱ.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나라의 경계는 동쪽이 황산강이요, 서남쪽이

4) 그런데 여기서 전체 집합 U 개념과 관련하여 A의 외부가 단순히 A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라의 경계’ 밖이 여전히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나라 밖이 또 다른 나라라고 본다면 A와 B의 경계 형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A의 경계’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밖이 현실적으로 또 다른 나라일지라도 A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성격에 대해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 ㄴ.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 서부터 시작된다.
- ㄷ. 동쪽 경계선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의 경계는 위와 같다.
- ㄹ. 가변성을 지닌 이들의 조직 앞에 국가의 경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ㅁ. 간격으로 설치한다. 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 철도, 하천 등을 횡단하는
- ㅂ. 한술 더 떠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경계를 10년마다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 ㅅ. 등 4개나 된다. 심지어 그린벨트 경계가 건물 한복판을 관통한 경우도 있다

또한 예문 (3)에서 보면 경계는 영토, 건물, 집 등과 같은 구체적 공간에 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신 등과 같은 추상적 공간으로 확대되어 존재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체가 없는 개념이나 사건도 경계를 부과하여 영역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 (3) ㄱ.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대상의 경계를 확정하고 이 대상 영역에 대한
- ㄴ. 능력을 남들과 비교해 보고,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 성공을 즐기기보다는
 - ㄷ. 잘 보이며 아울러 신성한 세계의 경계를 긋는 것이다. 사실 이 경계를
 - ㄹ.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생활의 경계가 허물어져 그 한계가 애매해
 - ㅁ. 주재자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나의 정신 경계가 1차적이며 다른 나머지는 모두

경계를 기준으로 볼 때 왜 ‘안’이 중심이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체험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세상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개체-안쪽과 바깥쪽을 지닌 그릇-로 경험한다는 체험적 근거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물리적 존재로서 우리의 피부 표면에 의해 경계 지어지고 세계의 다른 부분들과 구분되며, 세계의 다른 부분을 우리의 밖에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 또한 외부의 사물 역시 안쪽과 바깥쪽을 지닌 그릇으로 경험하며,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많은 사물이 뚜렷한 경계를 지녔다고 경험하고 또 사물이 뚜렷한 경계를 지니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사물에 경계를 투사하게 된다. 방이나 집과 같은 분명한 그릇 이외에 숲과 같은 자연환경에도 이 지향성을 부과한다. 그리고 어떤 자연적인 물리적 경계가 없는 경우에도 경계를 부과한다. 인간의 본능 중에 영토 소유욕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없으므로 영토를 그렇게 정의한다고 보았다. 나아가서 시야는 물론 사건과 행동, 활동, 상태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비물리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의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은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⁵⁾

‘그릇으로서 몸’ 도식과 관련된 근본적인 경험은 호흡하고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들이마시는 공기와 섭취하는 음식물이 사람의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안’이라는 방향은 필연적으로 긍정적이 될 수 있다(임지룡 152). 그릇 안의 내용물이 그릇의 경계가 되는 면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릇 안을 긍정적으로, 그릇 밖은 부정적으로

5) 다음에 제시된 문장에서는 세 개의 다른 경험 영역-공간적·사회적·정서적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념적 구조화에서는 차이가 있다. (ㄱ)은 은유적 개념의 실례가 아니라 (ㄴ)는 사회적 집단을 그릇 은유로, (ㄷ)은 정서적 상태를 그릇 은유로 공간화를 통해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이코프&존슨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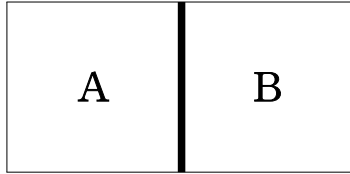
(ㄱ) Harry is in the kitchen. (해리는 부엌 안에 있다.)

(ㄴ) Harry is in the Elks. (해리는 엘크스에 가입되어 있다.)

(ㄷ) Harry is in love. (해리는 사랑에 빠져 있다.)

인지할 수 있다(임혜원 91).⁶⁾ 문화기호학적인 관점에서는 경계를 통해 분리된 내적 공간은 ‘우리의’, 또는 ‘나 자신만의’, ‘문화화되고’, ‘안전하며’, ‘조화롭게 조직화된’ 공간인 반면, 외부공간은 ‘그들의 공간’으로 ‘적대적인’ ‘다른’ 공간, ‘위험스런’, ‘혼돈의’ 공간이 된다고 한다(김수환 493).

(2) ‘A와 B의 경계’ 표현



[그림2] ‘A와 B의 경계’ 표현의 도식

두 번째 유형은 경계를 가진 대상을 하나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와 B 혹은 두 종류 이상의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별개의 두 항목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그 접점(그림에서 진한 색 표시 부분)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계를 가진 대상 하나만 나타난 표현의 경우 내부, 외부가 불균등한 구분을 보이는 ‘A의 경계’ 유형과 달리, 등가의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문 (4)에서 ‘땅과 하늘의 경계’라는 표현에서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은 등가의 항목이며, ‘거실’과 ‘부엌’ 사이에 경계가 위치하는 경우에도 두 항목이 동등한 자격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또 예문의 ‘익선동과 돈의동의 경계’에서 볼 수 있듯 두 개의 동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황’과 ‘백’이 대등하듯이 동등한 대상 간에 경계가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6) 그러나 그릇의 영상도식은 역전될 수 있다. 그릇 속에 갇혀 있는 것은 폐쇄적이고 구속적인 경험이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개방적이고 해방감의 경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병원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이 된다(임지룡, 『인지의미론』153).

나 두 항목의 표현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각 항목이 가진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립과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본다.⁷⁾

- (4) ㄱ. 거쳐 하늘 문에 오릅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를 가른다는 하늘문을 지나, 천길
- ㄴ. 여덟 평 남짓한 거실은 부엌과 경계가 없이 이어져 있으며, 거실에서
- ㄷ. 중간 지점이 익선동과 돈의동의 경계가 된다. 큰길 오른쪽 두서너 집을
- ㄹ. 나타나는 네 개의 다리는, 황과 백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실루엣이 되어

이 유형의 표현에서 보면 경계는 A와 B 사이에 존재하며 항목 A와 B는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건물, 영토, 글자, 회사, 사람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 (5) ㄱ. 있었는데 그것은, 벽과 천장의 경계가 되는, 즉 원통 모서리의 안쪽에,
- ㄴ. 있고 그 문 자체가 바로 동서 베를린의 경계가 되고 있다. 그

7) 표현 형식 자체에서는 대등한 것이므로 등가의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우/열이나 중심/주변 등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주인과 종의 경계’라는 표현이라면 ‘주인’과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로 인해 동등한 구조임에도 어느 하나가 중심이 되고 주변이 되는 불균형적인 경계를 생각하게 된다. ‘백인과 흑인의 경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두 항목의 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극의

- ㄷ. 위에 부스럼딱지마져 앉아서 글씨의 획과 획과의 경계가 매우 애매한 상태였다.
- ㄹ. 의견도 있다. 선발사와 후발사의 경계는 무너지고 "설립순위가
- ㅁ. 독자, 공연자와 관객, 작가와 비평가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차별화 해체
- ㅂ.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의 경계가 와해된다. 문학에서는

다음 예문에서는 문화나 학문, 사업의 영역(6ㄱ-ㄷ), 생사, 현실 등과 같은 추상 개념에 나타나는 경계(6ㄴ-ㄷ)를 볼 수 있다. 두 항목이 상보적인 대립의 의미를 갖는 경우, 등가로 이해되기보다는 대립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삶과 죽음’, ‘거짓과 진실’, ‘기억과 망각’은 상보적인 대립어라고 할 수 있는데,⁸⁾ 이때 두 항목간의 대립이 강하게 드러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비중이 커질 수 있다.⁹⁾

- (6) ㄱ. 현상 속에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지워져 버리는 것은 피할 수
- ㄴ.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이라는 二元論의 경계는 이전과는 다르게 역사적 해석학적
- ㄷ. 이럴 경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8) 상보대립어는 어느 한 쪽의 부정(삶이 아님)은 다른 쪽의 단언(죽음)이 되며, 둘 다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이 불가하나, 정도대립어는 ‘출다-답다’처럼 한 쪽의 부정(출지 않다)이 다른 쪽을 단언하는 것(답다)이 되지 않으며, ‘출지도 답지도 않다’가 가능하여 정도성을 보이는 것이다. (임지룡, 『국어의미론』160-161)

9) 이와 관련하여, 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계의 축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후속작업이 파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동의와 감사를 보낸다.

- 리. 현아에게 있어서도 삶과 죽음의 경계는 확실하지 않았다. 간혹은
- 로.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어. 그래서 우리가
- 리. 언어적인 것과 언어 외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지극히 불분명한 상태로 되기
- 리. 신화의 공간과 역사적 시간성 사이에 경계가 그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리. 역사가 늘 애매성으로 심판과 방임의 경계가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 리. 가득한 헤어숍을 배경으로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묻고 있다. 위성TV를 이용,
- 리. 반감을 느낀다. 권력과 무력함을 가르는 경계가 각자의 마음을 가로지른다.
- 리. 현재와 과거, 현실과 허구, 그리고 기억과 망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상소설이다.

다음 예문 (7)은 두 개 이상의 항목 사이에 경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 (7) 가. 생각하면 좋겠다. 또 유전자 간의 경계는 책의 페이지 사이의 경계만큼 10)
- 나. 그들 도덕적 명령들 사이에 경계를 그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마지막
- 다. 아랫마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마을 간의 경계가 분명하게 있었

10) 이 예문의 경우 동일한 항목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경계인데, 첫 번째 유형의 표현 '유전자의 경계'가 유전자 내부와 외부로 경계 짓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던 것은 아니었다.

- ㄹ. 그것은 학습과 놀이와 노동 사이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행위 속에서 탁월하게 성취된다.
- ㅁ. 출생한 주체들이 국경과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근의 다문화시대의

2) 경계의 표지들

다음으로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찾아 보았다. 울타리나 벽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계표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면 경계표지는 ‘문’이나 ‘나무’에서 ‘도로’, ‘강’, ‘산맥’ ‘섬’ ‘해협’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간’과 ‘사건’도 경계의 표지가 됨을 보이고 있어 경계는 지각이 가능한 물체만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해가 가능한 것은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적인 데로 투사하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나타난 경계의 표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¹⁾

다음 예문 (8)은 건축물과 관련된 표지들이다.

- (8) ㄱ. 토지와 함께 위 탱자나무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그 남쪽의
- ㄴ. 가능해진다. 한편 건축물의 공간은 벽을 경계로 그 자체가 바깥 공간과 단절된다.
- ㄷ. 바로 보인다. 두서너 발자국 될까? 그 경계가 담장이 쳐 있다.
- ㄹ. 있고 그 문 자체가 바로 동서 베를린의 경계가 되고 있다. 그 비극의
- ㅁ. 그네를 걸어 두었다고 한다. 현관을 경계로 해서 권태목 씨

11) 이 자료에 나타난 형태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경계표지가 나타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부부와 아들이

- ㄴ. 건널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경계로 하는 두 대지는 엄연히 분리되어
- ㄷ. 벌일 때에는 중간의 조그마한 골목을 경계로 하여 칠석리가 동부와 서부로

다음 예문 (9)는 자연물이 경계표지가 된 경우인데, 나무로부터 구름, 산맥, 해협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 (9) ㄱ. 피고인의 부(父)가 그 중 밭둑을 경계로 위쪽 부분을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 ㄴ. 피고의 가옥 및 부속시설이 탱자나무를 경계로 하여 197평방미터 가량을 점유하고
 - ㄷ. 대체로 星州와 善山을 포함하여 洛東江을 경계로 그 이동지역이 주분포권이다.
 - ㄹ. 지난날 진왕이 천중산을 경계로 하지는 제안을 한 바 있었소.
 - ㄹ. 2~3세기 무렵까지 동예에서는 산천을 경계로 읍락의 생활권이 구분되어 다른
 - ㄷ.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우랄 산맥을 경계로 유럽은 끝나고 아시아가
 - ㄷ. 주고 받았다. 이들은 한 자락 해협을 경계로 대결하고는 있지만 맞은편에
 - ㄹ. 인도네시아 1만7000여개의 섬 중 발리섬을 경계로 서쪽에는 아시아 생물군이, 동쪽에는 호주 대륙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
 - ㄷ. 어려운 일이다. 금성의 대기는 구름층을 경계로 상층 대기와 하층 대기로 나뉜다.

다음 예문 (10)은 축구장의 선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선으로부터 도형의 선, 산의 능선, 위도 등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

- (10) ㄱ. 옷을 갈아입고 축구장 하프 라인을 경계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기
- ㄴ. 천정에도 마름모꼴 모양으로 된 테두리를 경계로 하여 하나하나의 원 속에
- ㄷ. 곧 사각형의 대각선인데, 그 선을 경계로 바깥쪽이 완전 칼로 벤 듯 몽땅
- ㄹ. 구재봉(鳩在峰), 분기봉(分岐峰) 능선을 경계로 청암면(靑岩面), 적양면(赤良面)과
- ㅁ. 확인도 하지 않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여
- ㅂ.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180°분역벽을 경계로 양쪽 분역의 분극 방향은 다르지만

다음 (11)은 전쟁이나 사건, 시간 자체가 경계의 표지가 됨을 보이는 예들이다.

- (11) ㄱ.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경계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이
- 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7년을 경계로 자강운동은 일본에 대한 태도를
- ㄷ. 그러나 이때를 경계로 하여 상무적인 분위기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점차 문약으로 흘러갔다.
- ㄹ. 소련과 동유럽의 관계는 일정 시점을 경계로 소련이 이들 국가를 착취하는 게

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을 경계로 해서,

이상에서 보인 예들 이외에도 경계표지는 다음과 같이 갈라진 틈이나 세포막, 신체의 일부, 행정구역, 물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12) ㄱ. 밤 사이 갈라졌던 틈을 경계로 해서 '우지직'하는 소리를 내며 얼음판이
- ㄴ. 수분은 세포막을 경계로 하여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 ㄷ. 윤곽을 뚜렷이 그려준 후 눈썹 뼈를 경계로 바로 아래까지 짙은 색을 발라
- ㄹ. 서울대와 과천 시, 시흥 시를 경계로 한 서울방면의 관악산 일부를
- ㄹ. 충실한? 또는 이를 위반하는? 현재의 장과 과거, 미래의 장은 이 물음을 경계로 갈라진다.

3. 경계의 존재 양태

경계 자체에 대한 개념 이해를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경계를 대상이나 주체로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검토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아 '경계를 X하다'와 '경계가 X하다'라는 표현을 검색하기로 하였다.¹²⁾ 용례를 찾아본 결과 일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12) 이 밖에도 경계와 관련된 표현으로 '경계에 서다', '경계에 발을 들여놓다', '경계로 하다', '경계로 삼다', '경계로 갈리다', '경계로 분할되다' 등이 있으나 대상으로 인식되는 면을 살피기 위하여 두 가지 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유형 분류를 하여 존재 양태를 살펴본 것인데, 각 유형은 경계의 생성에서 소멸 등 변화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검색 자료를 통해 나타난 경계의 동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¹³⁾

(13) <경계를 X하다>의 동사 목록

가로지르다 가르다 가지다 결정하다 경험하다 고정시키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구획정리하다 굶다 그리다 그어놓다 굶다 나타내다 넓히다 넘다 넘나들다 넘어가다 넘어서다 놓다 느끼다 두다 둘러싸다 뒤섞다 뒤흔들다 떠나다 뛰어넘다 만들다 마주하다 맞대다 모르다 무너뜨리다 무시하다 벗어나다 변화시키다 복원하다 부수다 설정하다 세우다 식별하다 신봉하다 쌓다 없애다 옮기다 알다 알려주다 유지하다 윤곽 짓다 완화하다 의식하다 이루다 인접하다 인정하다 재구성하다 접하다 정하다 지나다 지우다 지키다 짓다 책정하다 초월하다 축소하다 측량하다 침범하다 탐험하다 통과하다 파다 해체하다 향하다 허물다 헐다 혼동시키다 확인하다 확장하다 확정하다 형성하다 흔들어놓다

(14) <경계가 X하다>의 동사 목록

가로지르다 관통하다 관찰되다 구분되다 군다 그어지다 깨지다 끝나다 나타나다 놓이다 되다 드러나다 뚜렷하다 명백하다 명쾌하다 명확하다 모호하다(모호해지다) 무너지다 변하다 부서지다 분명하다(분명해지다) 불분명하다(불분명해지다) 불일치하다 불확실하다(불확실해지다) 뺏어나다 사라지다 생기다 설정되다 소멸되다 애매하다(애매해지다) 여리다 와해되다 유동적이다 이동하다 있다 없다(없어지다) 위반되다 정해지다 존재하다 재구성되다 지워지다 침범되다 침식되다 통합되다 해체되다 허물어지다 확립되다 확정되다 환원되다 흐려지다 흐트러지다 희미하다(희미해지다)

13) 이 동사 자료는 카이스트 용례 검색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계를’를 검색한 결과 729개, ‘경계가’는 308개로 나왔는데, 이 중 의미가 다른 경계를 제외하고(예: “적의 침입을 대비하여 경계(警戒)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명령하다”와 같은 표현), 반복되는 용례를 제외하여 얻은 결과이다.

1) 경계는 정하는 것

경계가 존재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경계를 만들기 때문이므로 이것이 경계가 생성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겠다. 경계가 존재하지 않던 곳에 경계를 '정하고, 설정하고, 결정'하여 '만들고, 놓거나 두는' 것이 가능하다.

- (15) ㄱ.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나. 입법자는 서로 다투는 생활 이익들에 경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때에
 다. 그 지형에 따라 축대를 쌓아 사실상 경계를 확정하였으나 그후
 지적공부를
 르. 자속면을 플라즈마 영역과 진공 영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
 면으로 삼았다.
 미. 자연 과학에서 분화는 엄격한 분과 경계를 만들어 낸 반면, 극
 분화는 그것을
 비. 농민의 계투(械鬪: 물이나 마을의 경계를 놓고 벌이는 다툼으로
 농민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
 시. 한 가지 공부를 마치는 것으로 경계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경계를 짓거나 세우거나 그리는' 일을 하여 '경계를 삼고, 형성하고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 (16) ㄱ. 천군바위 사이로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짓는 압록강 계곡입니다.
 나. 대성의 신드롬은 사회 계층을 따라 그 경계를 윤곽 지을 수
 있는 취향 문화를
 다. 이전처럼 국가간 경제에 경계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르. 조용히 돌아, 경상, 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주며 다시 남으로남으

www.kci.go.kr

로

- ㄱ. 태극기는,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그 사괘의 위치나 수효, 태극의 경계를 그리기가 얼마나 까다로운가.
- ㄴ. “서쪽은 압록강으로,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삼는다”는 귀절이 간도
- ㄷ. 이 장벽이 환경에 대한 그 인물의 경계를 형성하고, 그의 성격을 뚜렷하게 해준다.
- ㄹ.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과 경계를 이룬 남중국 해안지역을 가리킨다.

2) 경계가 존재함

만들어진 다음 단계로 경계는 존재하게 된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으며, 나타내고 고정시킬’ 수 있다(예문 17). 존재하는 경계를 ‘의식하고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예문 18).

- (17) ㄱ.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 ㄴ. 그 오벨리스크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비인 것이다.
 - ㄷ. 표현들이 속해 있는 가능한 언어 놀이의 경계를 고정시킨다. 만일 구체적으로
 - ㄹ. 세포막이 단순히 세포의 경계를 유지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면
-
- (18) ㄱ. 부근일대의 지적도까지 검토하여 경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ㄴ. 대한 인식이 없다. 이들은 지정학적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 ㄷ. 모습을 바꾼다. 여럿이 뭉쳐 있으면 경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 ㄹ. 연결하는데 사용되며 CSDI는 셀의 경계를 식별해 셀을 바이트단위로
- ㅁ. 母音調和의 양상을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를 구분하여 記述한다.
- ㅂ. 그건 새로운 내 마음의 움직임이다. 경계를 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 ㅅ. 돌로 쌓아 올린 발독만이 발과 발의 경계를 알려 주듯 구불구불한 곡선을 이루며 까맣게

또한 (19)를 보면 존재하고 있는 경계를 ‘통과하거나 가로지르거나 지나게’ 된다. 또 측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미있는 현상은 경계를 느끼거나 경험하는 대상으로도 이해한다는 것이다(예문 20).

- (19) ㄱ. 항공기가 남북한 비행 정보 구역의 경계를 통과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 ㄴ. 또 부분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의 경계를 지날 때 일부만이 보이지 않을
 - ㄷ. 지리적 분산은 커뮤니티, 국가, 지역간 경계를 가로질러 제조영역을
 - ㄹ. 현재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그 경계를 측량할 수도 없다는 점이 밝혀져야
- (20) ㄱ. 어느 순간 어둠과 빛의 경계를 느낄 틈도 없이 지붕들은 깊이 모를 밤바다의 푸른색이 되어버리곤 한다.
 - ㄴ. 이 땅의 산악인들은 대부분 최고봉을 점령하기 위한 도전과정에서 사랑하는 동지를 잃었고, 죽음의 경계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다음 (21)은 ‘경계가 X하다’로 표현된 자료인데 경계가 존재하게 된

결과 ‘정해지고, 설정되며, 구분되며, 놓이며, 그어지게’ 됨을 보이는 예들이다.

- (21) 가. 기능을 수행한다. 폐쇄된 공간은 그 경계가 정해져 있으며, 현실의 세계 및
 - 나. 219의 3이 1,057 평방미터로 뒤바뀌어 그 경계가 잘못 설정된 표시된 오류가 있는
 - 다.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 리. 모든 사람들을 엮어매고 있던 허위의 구조가 무너지고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다시 확립된다.
 - 마. 기업, 학교, 국가 등 권력에 있어서도 경계가 구분되는 때가 있다.
 - 바. 신화의 공간과 역사적 시간성 사이에 경계가 그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사. 간 뒤 있었던 일 사이에는 의미상의 경계가 놓인다. 전체 文意 중 보다 앞의

다음 자료 (22)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경계 존재에 대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고,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관찰 대상으로서 경계는 ‘분명한가’ 아닌가가 중요하다(예문23).

- (22) 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개념의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뜻이다. 칸트(Kant)적
 - 나. 공적인 것 사이에 일관된 혹은 결정적인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 다. 것이고, 달리 당시 구체적인 확인 가능한 경계가 있었던 것으로

www.kci.go.kr

보이지 아니한다.

- ㄹ.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새로운 경계가 나타난 지도를 주었다.
그는
- ㅁ. 얕으나 인장시험 후 이러한 직선 경계가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 ㅂ. 獨逸의 경우 租稅法 分野 직접성의 경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
나는 예로
- ㅅ. 다른 한쪽에 죽음이 있다. 그리고 그 경계가 균은 것 같으면서
도 여리다는 것을 사람들은 실증적으로 익히 알고 있다.

- (23) ㄱ. 양호하고 인접해있는 입자들 간에도 그 경계가 뚜렷하여 흡차
층이 균일하게
- ㄴ. 부속된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 ㄷ. 이미 철학과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
었다.
 - ㄹ. 어떤 사람은 [놀이]라는 개념이 경계가 모호한 개념이라고 말할
는지도
 - ㅁ. 종교 신앙자유는 반드시 敵과 我的 경계가 명확해야 하며, 종교
의 외투를
 - ㅂ. 단어를 구성하는 어소들은 그 경계가 명쾌한 언어이다. 또한,
굴절어는

경계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다. 건물을 관통하거나 마음을 가로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24) ㄱ. 반감을 느낀다. 권력과 무력함을 가르는 경계가 각자의 마음을 가로지른다.
- ㄴ. 등 4개나 된다. 심지어 그린벨트 경계가 건물 한복판을 관통한 경우도

3) 경계는 변하는 것

경계를 만들어서 경계가 존재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경계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가 다음 (25-27)에 제시된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경계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하다. 또한 옮기거나 흔들거나 끊는 것이 가능하다.

- (25) ㄱ. 인물에게 있어서도 발전의 단계마다 각 체계의 경계는 안정적이고, 이 경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충격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 ㄴ. 아까 견성 그것, 공부자, 어떤 경계를 파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자기 경계를
- ㄷ. 거쳐 하늘 문에 오릅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를 가른다는 하늘문을 지나, 천길
- ㄹ. 서쪽으로는 충청도, 전라도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
- (26) ㄱ.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시고
- 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변화를 포용하고,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 ㄷ. 한술 더 떠서 국립공원등 자연공원의 경계를 10년마다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 ㄹ. 확장시키고 있다. 仁政은 井田의 경계를 구획정리하는 데에서

시작되는데,

- ㄱ. 그 반대의 과정을 거쳐 지적도상의 경계를 현실의 토지에 옮겨 놓도록 하여
- ㄴ. 앉아서 고불(告佛)의 경계를 끊고 사자후를 크게

- (27) ㄱ. 시간 : 108분 현실과 꿈의 경계를 뒤흔드는 만화적 상상력, 추억의
- ㄴ. 생각하는 세계와, 몸으로 느끼는 영역을 마구 오가며 정신과 물질의 경계를 흔들어 놓으려는 욕망이라고나 할까.
 - ㄷ. 해결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미와 추의 경계를 혼동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으나
 - ㄹ.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디게 만드는 그 기도는 두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또한 ‘경계가 X하다’ 형식을 살펴보면 경계가 유동적이므로 변하고 이동하며, 침식되고 흐트러지고 깨지기도 한다.(예문 28),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경계가 ‘희미해지고,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등 식별이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예문 29).

- (28) ㄱ. 문제와 외부 코일의 위치 및 전류에 따라 경계가 변할 수 있는 자유경계 플라즈마
- ㄴ. 가장 큰 미학적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즉, 다른
 - ㄷ. 일정한 외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경계가 이동한다. 최초의 경계내에 있던
 - ㄹ. 당신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나라의 경계가 사방으로 뻗어나게 하셨습니다

www.kci.go.kr

- ㄱ.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가 자주 침식되고 위반되는 현상에
- ㄴ. 집괴들로 함께 융합되는 단편들에 의해 경계가 침식됨에 따라 발생한다.
- ㄷ.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 사이의 경계가 침범되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 ㄹ. 상대(商隊)의 율과 의리는 자연 경계가 흐트러지고 타관의
- ㅁ. 일종의 인터텍스트, 즉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가 깨진 거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계속 쓰는 것은
- ㅂ.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 (29) ㄱ. 그토록 분명했던 직관과 감각간의 경계가 희미해졌다고 말한 바 있다.
- ㄴ. 독자, 공연자와 관객, 작가와 비평가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차별화 해체
 - ㄷ. 역기능 중의 하나는 현실과 비현실간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현실감의 쇠퇴로
 - ㄹ. 지방과 독일인 거주지역은 종종 경계가 불확실하거나 이동하는 변경이나
 - ㅁ. 그 매수인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불일치함을 알고 사실상의 경계를

4) 경계를 거부함

경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경계의 존재를 거부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경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존재를 없애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없애지 않고 넘어가는 방식이다.¹⁴⁾

먼저 적극적이며 부정적인 방식의 거부를 보면, 경계를 ‘부수고, 허물고, 무너뜨리고, 지우고, 없애는’ 행위(예문 30)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경계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지워지고, 없어지게’(예문 31) 된다. 자료를 보면 ‘고급 예술영화와 대중영화’ 사이의 경계, ‘현실과 꿈’의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 ‘신화와 물리학’의 경계, ‘엄부와 자모’의 경계 등 두 항목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거부하는 ‘A와 B의 경계’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A의 경계’ 표현에서도 경계를 허무는 일이 가능하긴 하나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그린벨트의 경계’를 허물게 되면 그린벨트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A를 허물게 되면 그 존재 자체가 존립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30) ㄱ. 장르를 고급 예술 영화와 대중영화라는 경계를 허물고 다시 보자는 것이다.

ㄴ. 코스메틱과 코모티크의 경계를 완전히 부수고 얼굴을 억압하는

ㄷ. 훨씬 쉽게 현실과 꿈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한다.

ㄹ. 해질녘의 하늘과 땅의 경계를 천천히 지워 버리며 지평선을

ㅁ. 아비다르마 논자들이 마음과 물질의 경계를 없애지는 않았다.

그들은 책상을

ㅂ. 자기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지적도상 경계를 침범하여 있는 상

태가 수십년이

(31) ㄱ. 무의미해지고 있다. 신화와 물리학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도 그

14) 문화기호학에서는 경계를 극복하는 개념으로 ‘기호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안과 밖의 나눔이 불가능한 무한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호계의 내적인 이질성과 지구화 과정의 복합적인 혼종성이 그것의 내부 공간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힘의 질서와 권력의 위계 문제를 무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김수환 502).

일환이다.

- ㄴ. 위험(원)을 예방하는 경찰법 사이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 ㄷ.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간의 경계가 크게 허물어지고 있다.
- ㄹ. 한국사회의 부모들에게는 엄부와 자모의 경계가 없어지고 말았다.
- ㅁ. 현상 속에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지워져 버리는 것은 피할 수
- ㅂ.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의 경계가 와해된다. 문학에서는
- ㅅ. 귀족 계급의 특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으며,

거부의 방식 중 다른 하나는 경계를 허물거나 부수지 않고 이것을 넘어가는 초월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를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간주하고 경계 자체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고, 넘어서고, 뛰어넘는다.’ 또는 경계 존재를 ‘무시하거나’ 자유롭게 ‘넘나들며’, 아니면 경계를 ‘떠나거나 벗어나 초월하는’ 방식으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32) ㄱ. 취향 문화가 혼합되거나 계층 사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넘쳐 나면

- ㄴ. 그만큼 비싸다. 그리고 운전시는 서울 경계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운행 방법을
- ㄷ. 이 곡이 무정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경계를 넘어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 ㄹ. 능력을 남들과 비교해 보고,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 성공을 즐기기보다는

- ㄷ. 근처에서 놀던 동네집 송아지란 놈이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 들어와선, 저처럼
- ㄹ. 축제는 그러한 경계를 넘나드는 공동체 놀이다. 일상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공간에서 환상의 옷깃을 만지면서
- ㄱ. 매매 당사자들이 그 토지의 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
- ㅇ. 기업 활동은 이미 국가의 경계를 벗어났다. 21세기 기업의 의사
- ㅈ. 특히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지금까지 경계 표현의 유형 분류를 통해 경계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단계까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볼 때 경계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안’과 ‘밖’의 구분이 생겨나고 이로 인한 배타성, 폐쇄성이 문제가 되고, 두 항목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로 인해 불균형이 생기면서 발생한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33)에서 보듯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계를 다시 만드는 ‘복원’ 또는 ‘환원’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경계를 거부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33ㄷ)에서 보듯 ‘통합’이거나 ‘재구성’이라고 생각된다.

- (33) ㄱ. 가려야 할 것인바, 이 때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 ㄴ. 운동 내부의 차이로 전환되지 않고, 외적 경계가 내적 경계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 ㄷ. 그와 같은 차별주의나 분리주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장르의 경계는 소멸되고 통합되며 재구성된다.

4. 경계 표현에 나타나는 은유

이 장에서는 경계 표현들에 나타나는 은유를 통해 경계 개념 이해의 양상을 보이고자 한다. 언어 보편적 현상인 은유는 한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은유를 통해서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체로 이해하기도 하고, 한 개념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¹⁵⁾ 따라서 3장에서 다양한 경계표현들을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 표현들에 나타나는 은유 방식을 밝히는 것이 경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다 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 [경계는 사물]

경계표현의 용례를 보면 경계를 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 가장 많다. 이는 지각할 수 있는 물체로서 나타나는 경계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에서도 존재하는 경계이며, 이때 경계를 사물로 보는 은유가 작용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에서 분과 경계를 만든다', '개인 생활의 경계가 허물어지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은 경계를 '만들고, 허물 수 있는' 사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은유가 드러나는 동사 중심으로 간단히 예를 제시하도록 하겠다.¹⁶⁾

15) 예를 들어 '그 주장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공격해라' 등과 같은 표현을 흔히 하는데, 논쟁할 때 수행하는 행동을 '공격'과 '방어' 등 전쟁이라는 개념에 의해 구조화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은유는 [논쟁은 전쟁] 은유이다.

16) 이기동은 동사를 중심으로 개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I tried to catch the waiter's eye.'라는 표현에서 'catch'의 목적어로서 시선(eye)을 움직이는 개체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경계를 X하다'의 목적어인 '경계'가 동사 X에 따라 어떻게 개념화되는가를 보이는 것도

(1) [경계는 건축물]

다음에 '경계'와 결합하는 동사를 통해서 파악되는 경계 개념은 짓고, 부수고, 넓히거나 축소하고, 측량하는 것이 가능한 건축물로 드러난다.

- 경계를 - 넓히다, 무너뜨리다, 복원하다, 세우다, 쌓다¹⁷⁾, 짓다, 축소하다, 측량하다, 파다, 해체하다, 허물다, 헐다, 확장하다
- 경계가 - 무너지다, 와해되다, 해체되다, 허물어지다

(2) [경계는 장애물]

경계를 장애물로 개념화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이는 동사들이다.

- 경계를 - 넘다, 넘어가다, 넘나들다, 넘어서다, 뛰어넘다, 통과하다

(3) [경계는 깨지는 물건]

경계가 부딪혀서 깨지거나 부서지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 경계를 - 부수다
- 경계가 - 깨지다, 부서지다

(4) [경계는 이동 가능한 물체]

경계를 물건처럼 여기저기 두거나 놓을 수 있고, 옮기는 것이 가능하

같은 관점이라 할 수 있다(81-84).

17) 이 표현은 '정을 쌓다' '한을 쌓다'에서도 나타나는 바, 동일한 은유 방식을 볼 수 있다.

다. 또한 경계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이동하기도 한다.

- 경계를 - 놓다, 두다, 옮기다
- 경계가 - 놓이다, 이동하다, 가로지르다, 관통하다, 사라지다

(5) [경계는 흔들리는 사물]

경계는 움직이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시키거나 흔들 수 있다.

- 경계를 - 고정시키다, 뒤흔들다, 흔들어놓다

(6) [경계는 굳기를 가진 물건]

경계는 무디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이며, 굳고 여림이 나타나는 물건이다.

- 경계를 - 무디게 만들다
- 경계가 - 굳다, 여리다

(7) [경계는 끈]

경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끈과 같은 사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경계를 - 끊다¹⁸⁾

18) 말에 대한 표현에서도 ‘말을 끊다’, ‘말을 자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말은 끈이다] 은유를 찾을 수 있다(임혜원, 「한국어 ‘말’의 은유」147). ‘정을 끊다’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계 표현의 경우 ‘경계를 자르다’ 용례는 나오지 않았다.

2) [경계는 선]

경계는 굵거나 그림으로써 존재하고 그리하기에 그어지고 지워지는 선이다.

- 경계를 - 그리다, 굵다, 그어놓다, 지우다
- 경계가 - 그어지다, 지워지다, 희미해지다

3) [경계는 장소]

가로지르는 것이 가능한 ‘마당’이나 ‘도로’와 같이 폭을 가진 장소로 나타난다. 경계 장소는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탐험하는 것이 되거나 침범하는 것이 된다.

- 경계를 - 가로지르다, 탐험하다, 침범하다, 둘러싸다, 지나다
- 경계가 - 침범되다

4) [경계는 경험, 지식 대상]

사랑을 느끼고 아는 것이나 정을 느끼고 아는 것처럼 경계 역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또 앎의 대상이 되어 알고 모르며, 구별하고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 경계를 - 경험하다, 구별하다, 느끼다, 알다, 알리다, 의식하다, 인정하다, 모르다, 식별하다, 신봉하다,
- 경계가 - 관찰되다, 구분되다

5) 그 밖의 은유

www.kci.go.kr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특이한 예로는 ‘경계가 침식되다’를 통해 나타나는 [경계는 자연현상이다. 이는 경계가 변하는 것이 해안선이 침식 되는 것과 같은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이는 예이다. 또 ‘나라의 경계가 사방으로 뻗어나게 하셨습니다.’와 같은 표현에서 [경계는 생명체]로, ‘경계를 책정하다’에서 [경계는 가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일상 언어의 사용 속에 개념화 면모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경계’의 개념화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일상 언어 표현의 용례는 카리스트 말뭉치 자료와 세종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경계를 X하다’, ‘경계가 X하다’, ‘경계로 X’, ‘X의 경계’ 형식을 중심으로 용례를 검색한 후 이 자료를 가지고 경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경계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이며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현 형식상 ‘A의 경계’와 ‘A와 B의 경계’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A의 경계’ 표현에서는 대상(A)과 그것을 제외한 영역(~A) 사이에 경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표현에서는 경계를 기준으로 대상의 내부가 외부보다 더 중요하거나 중심이 되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 ‘A와 B의 경계’ 표현에서는 A와 B 사이에 경계가 존재하는데, 두 항목이 형태상 등가이나 두 항목 간에 대립이 드러나는 경우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힘이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또 경계표지로는 ‘올타리’나 ‘나무’와 같은 지각이 가능한 물체만이 아니라 ‘시간’과 ‘사건’ 같은 추상적 개념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는 ‘경계를 X하다’와 ‘경계가 X하다’라는 표현을 검색하고 유형분류를 하여 경계의 존재 양태를 살펴보았다. ‘경계는 정하는 것, 경계가 존재함, 경계는 변하는 것, 경계를 거부함’ 등의 단계로 나누고 구체적인 용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계 표현에 나타나는 은유를 찾아보았다. 만들고 부수는 것이 가능하고, 세우고 흔드는 것이나 깨는 것이 가능한 [경계는 사물] 은유, 그렸다가 지울 수 있는 [경계는 선] 은유, 가로지르거나 침범할 수 있는 [경계는 장소] 은유,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경계는 경험대상] 은유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일상 언어를 대상으로 한 인지미론적 연구의 하나로서 말뭉치 용례를 검색하여 경계 표현에 나타난 개념 이해 양상을 살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른 자료에서 새로운 용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 경계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례가 충분히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어로 표현된 ‘경계’ 개념을 규명하고자 한 이 작업이 비교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언어 간 경계 개념화를 비교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날 경계 현상을 연구하는 인문학적인 여러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 김수환. 「경계 개념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접근-구별의 원리에서 교환의 메커니즘으로」. 『기호학연구』 23(2008): 489-514.
- 나익주. 「개념적 은유: [사랑]」. 이기동 엮음.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2000. 415-444.
- _____. 「정’과 ‘한(恨)’의 은유적 개념화」. 『한국어미학』 20(2006): 91-120.
- 박수경. 「인지언어학에 의한 은유적 의미 고찰 - [사랑은 용기 속의 액체이다]에

- 대한 일본어 은유 표현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4(2007): 31-51.
- 방영심, 이정화. 「한국어에 나타나는 ‘한(恨)’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의미학』 22(2007): 95-122.
- 이기동. 「관용어, 은유, 그리고 환유. 『담화와 인지』 4.1(1977): 61-87.
- 임지룡. 『국어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992.
- _____.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997.
- _____. 「화의 개념화 양상. 『언어』 25.4(2000): 693-721.
- _____. 「‘기쁨’과 ‘슬픔’의 개념화 양상. 『국어학』 37(2001a): 219-249.
- _____. 「긴장의 개념화 양상. 『담화와 인지』 8.2(2001b): 205-227.
- 임혜원. 「한국어 ‘말’의 은유. 『한말연구』 8(2001): 139-173.
- _____.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2003.
- 전혜영. 「언어구성에 나타난 남녀 은유의 양상. 『여성학논집』 22.1(2005): 53-77.
- 조지 레이코프, 마크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 나익주 옮김. 서울: 서광사, 1995.
- Kövecses, Z. *Metaphor - a practical introduc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_____ and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_____ and M.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A Study of the Conceptualization Process of Korean ‘Boundary’ Expressions

Jeon Hye-you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onceptualization process of Korean “boundary” expressions using a cognitive semantics approach.

In Chapter 2, I examine the locations and markers of “boundary.” The extracted linguistic examples from the KAIST Corpus and the Sejong Corpus are divided into the two different types: “the boundary of A” and “the boundary between A and B.” It is shown that boundary markers could be tangible objects such as “fence” or “tree” and abstract concepts like “time” or “event” as well.

In Chapter 3, I explicate the existing patterns of “boundary” by searching such expressions as “X-verb the boundary” or “The boundary is X-verb.”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the 4 different types: a boundary to be set, a boundary that exists, a boundary that changes, and a boundary to be rejected. Specific examples are given and discussed for each type.

In the final chapter, metaphorical expressions are investigated in regard to the concept of “boundary” itself. Conceptual

metaphors of a “boundary” in the Korean language seem to appear in different patterns, as follows: [a boundary is a concrete object], which can be built, broken, established, shaken, and smashed; [a boundary is a line], which can be pictured and erased; [a boundary is a place], which can be traversed and invaded; [a boundary is a subject of experience], which can be felt and experienced.

This paper is one of cognitive semantics studies based on the everyday Korean language. Its significance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ceptualization process of the “boundary” expressions were examined using the corpus data. I hope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contemporary humanistic approaches that deal with the boundary phenomenon.

주제어: 경계 표현(boundary expressions), 경계표지(boundary markers), 일상어(ordinary language), 개념화 양상(the aspects of conceptualization), 인지의미론(cognitive semantics), 은유(metaphor)

논문제출일: 2010. 04. 30
심사완료일: 2010. 05. 15
게재확정일: 2010. 05. 15

